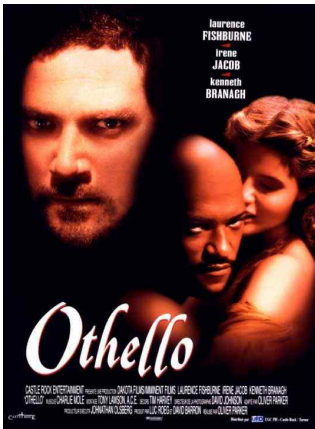


의심 Zweifel

1. 어원 및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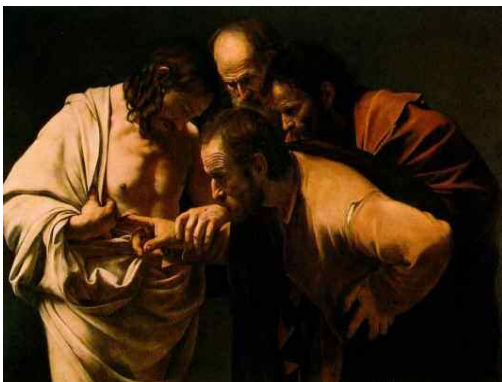


고고지 독일어 'zwifal', 중고지 독일어 'zwivel'에서 유래한 단어 '의심 Zweifel'은 '둘'을 의미하는 'zwei', '접다, 포개다'를 의미하는 'falten'이 합쳐진 단어로, 어원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의심이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다. 일종의 감정 상태로, 어떤 사람의 행위, 결정, 믿음, 주장, 혹은 사실의 추측 등과 관련하여 확실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영화 '오셀로' (1995)의 포스터>

2. 모티프 유형



<카라바조의 그림: 의심하는 도마>

1) 믿음을 회복시키는 도구로서의 의심
의심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중 하나는 성서에 등장하는 도마에 대한 것이다. 예수의 제자였던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루는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해 자신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상처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이를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예수는 8일 후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상처 부위를 만지도록 하여 도마의 알팍한 믿

음을 질책하고 믿음을 가질 것을 독려했다.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는 도마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인간의 알팍한 마음과 의심을

그림으로 형상화시켰다.

2) 속임수와 불신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의심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Othello』이다. 이 작품에는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모든 사실이 부하의 계략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자 죄책감에 목숨을 끊는 오셀로의 비극적인 삶이 그려져 있다. 주인공인 무어인 오셀로가 아내를 죽이게 되는 과정의 시작은 자신의 부관인 이야고의 말을 듣고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속임수와 불신으로 인한 오셀로의 의심은 질투를 낳고 질투는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이처럼 '의심'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비극적인 이야기 진행을 위한 출발 모티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3) 인간관계를 상실시키는 의심

의심은 인간관계를 상실시킨다. 의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며 서로간의 신뢰를 깨뜨린다. 신뢰가 깨지면 대화가 단절되고 오해와 불신이 커진다. 결국은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져 다툼과 분란이 일어난다. 클라이스트의 『깨어진 향아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깨진 향아리 때문에 사랑과 권력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는데, 등장인물들은 이 의심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4) 돌이킬 수 없는 사건

의심은 한 사람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오셀로』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한 번의 의심으로 인해 주인공 오셀로는 아내의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에 직면한다.

3. 서사구조

	내용
원인	소문
	타인의 밀고
	외적인 변모(변화)
	모략, 속임수, 불신
	병(의처증, 의부증)
과정	의심의 증폭, 해소
	추적, 미행, 자아분열
	광기, 불안
결과	지속적인 의심으로 성격의 변모

	정신병
	의심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름 (살인)
	믿음의 회복
	사랑(관계) 회복
	의심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 생산

4.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깨어진 항아리 Der zerbrochene Krug』*

작가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Heinrich von Kleist(1777-1811)
장르	희곡
생성년도	1803-1806
등장인물	발터: 위트레히트에서 파견된 검열관 아담: 마을판사 리히트: 서기 마르테 룰 부인: 깨어진 항아리의 주인 이브: 마르테 부인의 딸 파이트: 농부 루프레히트: 파이트의 아들로 이브의 약혼자

4.1. 내용 요약

1-3장

마을판사인 아담이 전날 마을 처녀 이브에게 몰래 구애를 하다 들켜 얼굴을 다친 채 한쪽 다리에 붕대를 감고 앉아 있다. 그의 서기인 리히트가 등장하여 왜 다쳤는지 묻자 아담은 적당히 둘러댄다. 리히트가 사법 검열관인 발터가 지방재판소들을 검열하기 위해 오늘 온다는 소식을 전하자, 아담은 불시에 들이닥친 감사로 인해 정신이 없다.

4-6장

검열관 발터가 등장하고, 아담의 공판과정에 배석한다. 재판정에서 써야 할 가말이 없자 아담은 맨머리에 분을 바르고 재판을 진행하라는 발터의 요구를 받는다. 재판정에 마르테 부인과 파이트가 등장해 항아리가 깨진 것이 누구 탓인지를 놓고 서로 다툰다.

* 김기선(역): 깨어진 항아리, 성신여대 출판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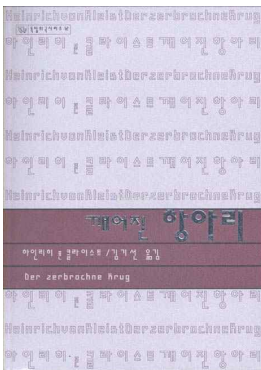


파이트의 아들인 루프레히트는 마르테 부인이 화를 내는 것은 깨진 항아리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그녀의 딸 이브 사이의 혼사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루프레히트가 이브의 순결을 의심하며 그녀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7장

이들 앞에 아담이 가발을 쓰지 않은 채 범복만 입고 등장한다. 아담은 이브가 지난밤의 사건을 밝히려 나온 줄 지레 짐작하고 겁을 내지만, 소송이 깨진 항아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안도한다. 마르테 부인은 항아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한참 설명한 후에, 지난 밤 11시에 딸의 방에서 소동이 있었고, 거기서 깨진 항아리와 루프레히트를 발견했으며,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이브가 맹세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브는 맹세한 일이 없다며 어머니의 진술에 반대한다. 발언기회를 얻은 루프레히트는, 지난 밤 이브의 집에 갔다가 이브가 어떤 작자와 어둠 속에서 만나고 있다 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서로간이 의견이 다르고 의심은 커져만 간다. 그러자 결국 이브가 증인으로 나선다.

8-9장



아담은 범인을 루프레히트로 몰고, 사건당사자들을 서둘러 화해시키려고 해보지만 발터가 이를 제지하고 이브에게 증언을 하게 한다. 이브는 루프레히트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탓한다. 이와 더불어 그녀는 항아리를 깨뜨린 사람이 루프레히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다. 하지만 이브는 제 3의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한다. 마르테 부인은 루프레히트가 범인임을 확신하고, 그가 징집을 피해 이브와 함께 돈을 훔쳐 도망가려 했다며 이를 증명해 줄 사람으로 루프레히트의 고모인 브리기테 부인을 지목한다. 브리기테 부인이 10시 반에 정원에서 루프레히트와 이브가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발터의 요구에 따라 아담은 브리기테 부인을 증인으로 법정에서 데려오도록 정리를 보낸다.

10-13장

브리기테 부인이 등장해 증언을 하자 범인이 아담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아담이 루프레히트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감옥에 가둘 것을 선고하자, 이브가 어쨌든 자신을 찾아왔던 것이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루프레히트에게 그를 붙잡아 재판장의

자리에서 쫓아내라고 요구한다. 겁먹은 아담은 서둘러 도망간다. 루프레히트는 이브를 의심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이브는 발터에게 루프레히트를 동인도 징집에서 구해줄 것을 부탁한다. 하지만 이 징집명령서는 아담이 위조한 것임이 곧 드러난다. 아담은 루프레히트를 징집에서 면제해 주겠다고 위조 건강증명서 작성을 빌미로 이브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모든 오해가 풀리자 파이트는 아들이 이브와 결혼하는 것을 승낙한다.

4.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인간관계를 상실시키는 의심
- 서사구조: 어느 날 갑자기 깨지게 된 항아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생기고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원인	속임수와 불신: 서로(사랑)를 믿지 못하고 의심
과정	의심의 증폭, 해소: 재판에 휘말려 거짓말을 말하고 속임수를 씀
결과	관계회복: 의심이 해소되고 두 연인은 결혼승낙을 받음

5. 작품 목록

-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오셀로 Othello』 (1604)
- 클라이스트 Heinrich v. Kleist: 『깨어진 항아리 Der zerbrochene Krug』 (1811)
- 구츠코우 Karl Gutzkow: 『의심하는 여자 발리 Wally, die Zweiflerin』 (1835)
- 카프카 Franz Kafka: 『소송 Der Prozeß』 (1925)
- 프리쉬 Max Frisch: 『비더만과 방화범들 Biedermann und die Brandstifter』 (1953)

6. 연계 모티프

경쟁, 광기, 공포, 불안, 사랑, 살인, 이별, 자아분열, 죽음, 정조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경쟁 + 불안 + 의심 + 광기 + 살인
스토리	<p>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기 위해 주인공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앞서나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혹시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의 기회를 가로채지 않을까 의심한다. 이러한 의심은 광기로 변하고 기회를 노칠 위기에 처하자 경쟁상대를 죽인다.</p>